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금융교육의 중요성

최근 고령화, 디지털 기술혁신, AI 금융 서비스의 등장 등과 같이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생존과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은 어렵고 복잡하며,

본질적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과

협상력의 차이가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건전하고 슬기롭게 금융생활을 하고,
자산을 늘려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금융교육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 금융교육의 달(매년 4월)을 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정부기관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03년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제정으로 매년 4월을 국가금융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백악관, 재무부, SEC 등 주요 기관이 금융교육의 중요성 적극 홍보

3.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모든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층, 이후 소득이 있는 시기(장년층), 그 이후 노년층 등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아동·청소년 시기의 금융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AI 시대를 맞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literacy)* 교육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금융의 개념과 위험을 이해하고 적용시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향상시키는 능력(OECD)

② 청년층의 경우, 금융범죄에 가담하지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도 않도록
금융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이 차근차근 자산을 형성하고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층을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 신설을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③ 생애 중반기에 접어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는
가정 내 금융교육 방법을 안내하고,
은퇴시점이 다가온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단절에 대비한 자산관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④ 고령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범죄로부터 자산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치매와 치매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25.12.19일 금융위 업무보고

◇ 잠겨 있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신탁 활성화

4. 마무리 말씀

금융교육은 단순히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금융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